

Project portfolio

김우기 1986. 08. 16
pcmwooki@gmail.com

이력

세일즈부스트 (2018.2 ~ 2018.05)

- 페이스북 픽셀 마케팅 플랫폼 프론트엔드 프로토타이핑
- Typescript , react, nextJS, styled component, js sdk develop

집매치 (2017.5 ~ 2017.08)

- 선대인 경제연구소 프로젝트
- 나의 집 기준으로 더 좋은 조건의 부동산을 매칭해주는 매칭 하이브리드 앱
- Front-end (React-native ver.0.44) (iOS / Android)

집코치 (2016.1 ~ 2017.03)

- 선대인 경제연구소 프로젝트
- 나의 집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 및 동향을 코칭 해주는 하이브리드 앱
- Python (Flask) Api server 개발
- Front-end 유지보수
- Android / iOS

Buzzni (2015.4 ~ 2016.12)

- 홈쇼핑 모아 하이브리드앱 파트에서 웹 프론트엔드 담당
- 이벤트 및 관리자 개발

LinkNow에 inthe-company팀 입사 (2013.7~2014.3)

- <http://www.linknow.kr>
- 기존 링크나우 서비스 유지보수
- 기존 시스템에 페이스북 로그인 연동
- 채팅으로 채용하는 서비스인 LinQ 안드로이드 개발
- PHP, Codeigniter,facebookAPI,

대학졸업과 함께 친구와 Inthe-Company 코파운더 참여. (2011.6 ~ 2014.10)

inthe-movie

영화메타서비스로 각 포털에서 영화제목과 랭킹을 수집하여 리뷰, 동영상, 사진, sns의견 등을 모아 볼수 있는 서비스.

- python, postgresql, DjangoFramework, html, css javascript,
- <https://github.com/kalook/inthemovie>

Fpage (개발1명,기획1명)

페이스북페이지 메타서비스로서 등록된 페이스북 페이지의 피드, 사진, 동영상, 댓글 등 약 100만개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 추적하며 일반 유저들에게는 좋아요가 가장 많은 피드를 추천 해줍니다.

python, postgresql, DjangoFramework, html, css javascript,
<https://github.com/kalook/fpage>

외주

영화 및 이벤트용 페이스북 앱 개발

- (광해, 늑대소년 등 약 30여개의 페이스북 이벤트 앱 개발)

php, Heroku, html, css, javascript, facebookAPI

성공회대학교(2005~20012)

1. skhutalks : facebook, twitter, m2day api를 이용한 교내 소셜댓글 플랫폼 (UI, Playframework)
2. inthe-deal : 메타소셜커머스 (UI)
3. 엔분의 일 : 계산시 1/N 할수 있게 해주는 N-Screen(web/android/ios) 기반의 서비스 (web 담당) (학과 소프트웨어경진대회 1위)

선린인터넷고등학교 (2002~2005)

1. 2003년 NpiaSoft 스타트업 코파운더로 참여.
2. 웹/플래시 기반의 외국어 교재제작 납품

업무 스킬

C, Python, Java, PHP

HTML5 / CSS3 / Javascript / React-native , ES6, node.js

Android

Express, Flask , DjangoFramework, PlayFramework, Codeigniter,

mysql, postgresql

svn, mecurial, git

SNS 연동

PhotoShop

남김말

버즈니 이야기

회사 정리 후 홈쇼핑 모아를 개발하는 버즈니에 입사하여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근무하며 이벤트 웹앱 및 관리자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디자이너 ,기획자, 홍보담당자, 사업제휴팀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업 하며 서비스 개발시 커뮤니케이션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기획자에겐 불안감을 낮추고 디자이너 에게는 자존감을 높이며 개발 직군은 겸손하지만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업제휴나 홍보 처럼 개발과 거리가 있는 직군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관리자 톨을 담당자 편의성 위주로 개발하며 효율을 증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예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구글 설문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설문조사를 개선하는게 좋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기존 설문조사 시스템을 재구축 하였으며, 특히 취합및 통계에서 홍보 담당자와 소통 으로 불편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결과 2시간 30분 이상 걸리던 취합 업무를 클릭한번에 정리된 자료를 받아볼수있게 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해 언제 어느때나 부담없이 설문조사를 진행 및 사용자에게 관련 피드백으로 서비스 품질을 증가시키고 부담없는 홍보자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 하였습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사례로 타 회사에서 우리 설문조사 시스템의 취합 편의성이 부럽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저또한 업무만족도를 증대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소통시엔 1px까지 살펴보면서 디자이너가 공들인 저작물을 존중하되 상호 신뢰를 바탕을 기반한 소통으로 디자이너와의 협업이 매우 매끄러웠습니다.

디테일한 피드백은 디자이너의 자존감을 높혀줌과 동시에 저의 신뢰성에 안정을 취하는 방법이기도 이 소통방법은 가장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저와 일하는 디자이너분들에게 행복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자와 개발자는 항상 마찰이 많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의 기획자, 1년미만의 기획자와 협업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 스타일과 퍼포먼스가 다르지만 저만의 소통법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버즈니에서 1년미만의 초급 기획자나 인턴과 협업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부족한것보단 미경험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자의 전공인 심리학을 적극 활용하여 이벤트 웹앱 개발시 사용자 심리를 자극하여 반응을 높이는 실험을 지속하였고 푸시 유입량이 크게 늘어 월간 사용자 수 및 신규 사용자수 유입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개발적으로는 SNS공유기능시 웹앱에서 카카오 관련이슈가 많았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에는 당시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웹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이티브에서 따로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기존 카카오 공유 라이브러리 소스를 개선하여 사용하였고 덕분에 앱 개발자 분들의 수고를 덜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연말 사내 투표를 통해 받을수 있는 사내 표창인 <버즈니 감사상>을 받은 경험은 그간 소통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 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건 공감능력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 이야기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1년 플래시 액션스크립트 개발, 대학졸업후 3년동안 코파운더 개발자로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혼자 여러 업무를 해야 했으며 특히 환경에 따른 스킬셋을 유기적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처음 익히는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일때 부담감도 굳은살이 생겨 즐길수 있으며 코파운더 근무시 페이스북 페이지 모음 서비스 개발시 서비스 기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개발을 Django framework로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Front-end 가 좀더 효율이 좋아서 버즈니에서 정식으로 Front-end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계발 욕심과 더불어 부동산 이슈에 눈을 뜨게 되었고, 웃도 가격비교 하면서 하는데 왜 비싼 부동산은 가격비교가 없을까 라는 생각에 전문가 그룹인 선대인 경제 연구소와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집코치 라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담당 파트로 python으로 Flask를 이용하여 API서버개발을 통해 기술적인 폭을 넓혔습니다.

퇴사후 최근 외주 프로젝트로 React-native 개발을 통한 앱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React-native 생산성을 체감하며 각종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인기술은 Front-end 지만 기술적 허들을 넘는 재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에 몸을 던져 공부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최근 JavaScript 개발을 통해 뛰어난 생산성에 매력을 느끼

는 중입니다. 서버개발 경험으로 인해 서버개발자와 공감하며 협업시 동료들에게 일하기 좋다는 피드백을 자주 받았으며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경력과 상관없이 나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로 임하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응대하여 받는 피드백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발 철학

요리와 커피를 즐기는 개발자 입니다.

두가지의 공통점은 혼자 즐길때보다 같이 즐길때 더욱 가치가 있는 취미 입니다.

사내 워크숍이 있을때 동료들에게 음식을 해주는것과 평소 좋은 품질의 원두를 갈아 동료들과 나눠 마시는것을 즐깁니다.

개발 마인드 역시 이것을 상속받습니다.

개발 자체를 즐기는 개발자 이전에 내가 짜는 코드 한줄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향하는 코드를 개발하는건 하루아침에 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를 유지시키기 위해 항상 동료와 사용자를 우선시 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개발 공부이전에 동료와 사용자를 생각하는 개발 공부는 더 좋은 편의성과 만족성을 높이는 결과로 수렴되었습니다.

근무시 나에게 월급을 주는건 대표와 주주가 아닌 사용자의 만족도이며 그것을 만드는건 저와 동료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향하는 철학을 지닌 회사를 지향합니다.

국민없는 나라가 없듯 사용자 없는 서비스는 존재할수가 없기에 이 가치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회사의 부품이 되기 보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로서 좋은 가치를 찾는 기쁨을 나눌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